

투자위험등급:

2등급

[높은 위험]

프랭클린템플턴투자신탁운용(주)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등급(매우 높은 등급)에서 5등급(매우 낮은 위험)까지 투자위험 등급을 5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간이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프랭클린 글로벌 증권 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에 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한 요약 정보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프랭클린 글로벌 증권 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증권신고서 또는 정식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프랭클린 글로벌 증권 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52890)
2. 집합투자기구 분류 : 투자신탁, 증권(재간접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
3. 집합투자업자 명칭 : 프랭클린템플턴투자신탁운용(주) (02-3774-0600)
4. 판 매 회 사 : <http://www.franklintempleton.co.kr> 및 <http://dart.fss.or.kr> 참조
5. 작성 기준일 : 2013년 12월 31일
6.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14년 2월 4일
7.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모집(매출) 총액 : 10조좌]
8. 모집(매출) 기간(판매 기간): 추가형으로 계속 모집 가능
9. 존속기간 : 별도로 정해진 신탁계약기간은 없음
10.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나. 투자설명서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02-3774-0600, <http://www.franklintempleton.co.kr>), 판매회사 및 협회

※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효력발생일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참고할 수 있으며, 투자자는 간이투자설명서 대신 투자설명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시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6.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 보험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8.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간이투자설명서

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투자목적

국내외에서 발행된 글로벌 주식형, 혼합형 및 채권형 집합투자증권 등(이머징 마켓의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을 포함, 이하 동일)에 분산 투자하는 재간접형 투자신탁으로서 글로벌 분산투자를 통해 장기적인 자산 증식을 획득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2.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가. 기본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국내외에서 발행한 집합투자증권 등에 투자하는 재간접형태의 투자신탁으로서 피투자집합투자증권의 운용실적에 따라 주된 이익 또는 손실이 결정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안정적인 투자 수익 창출을 위해 글로벌 주식형 집합투자증권, 글로벌 혼합형 집합투자증권, 글로벌 채권형 집합투자증권, 이머징 마켓 주식형 집합투자증권 등 다양한 집합투자증권에 신탁재산의 50% 이상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주식형 집합투자증권에 40% 이상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투자 대상 집합투자증권은 당해 펀드의 운용 규모, 과거의 운용 성과, 투자 스타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할 예정입니다. 투자 대상 집합투자증권의 비중은 사전에 확정된 것이 아니며, 편입 당시의 거시 경제 환경, 금융시장 환경 등에 따라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 투자신탁의 성과 비교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비교지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시장 상황 및 투자 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 지수의 등장에 따라 이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비교지수: MSCI All Country Index(60%) + Barclays Capital Total Return Bond Index(30%) + KBP_Call(10%)

나.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개요

주식형 집합투자기구	글로벌 주식형 및 이머징 마켓 주식형 집합투자증권 등 (신탁재산의 40% 이상 투자)
혼합형 집합투자기구	주식투자를 통한 자본 이득에 채권 투자를 통한 이자 수입 확보
채권형 집합투자기구	글로벌 채권 투자를 통해 총 투자 수익(이자 수입, 자본 이득, 외환 차익) 극대화
국내 유동성 등	국공채 및 우량 회사채 등

다. 위험관리

기준 통화가 외국 통화인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환율 변동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일정 부분 헤지(투자 대상 집합투자증권의 기준 통화 전체에 대한 환헤지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함)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펀드가치변동이나 펀드편출입으로 자산가치가 변동하는 경우에는 헤징 거래도 이에 따라 조정할 예정이나 목적하는 바가 달성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환헤지]

펀드의 매수시점보다 매도시점에 환율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환헤지를 실시하는 경우 추가적 손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펀드의 매수시점보다 매도시점에 환율이 올라가는 경우 환차익을 얻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환헤지를 실시하는 경우 추가적 이익기회가 상실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환차손익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상기의 투자전략 등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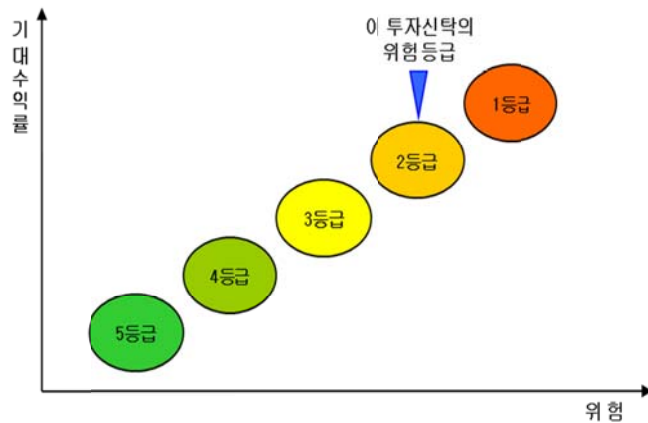
3. 주요 투자위험

아래의 투자위험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위험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 분	투 자 위 험 의 주 요 내 용
원본 손실 위험	✓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신탁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매입한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수익증권 등 가격변동 위험	✓ 이 투자신탁은 해외 및 국내의 주식과 채권등을 주요 자산으로 가진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함에 따라 그러한 집합투자증권의 가격하락으로 인한 손실위험에 노출됩니다.
시장위험 및 개별 위험	✓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일부를 채권 및 파생상품 등에 투자함으로써 유가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변동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환율변동위험	✓ 해외시장에서 거래되는 증권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기 때문에, 피투자 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하는 자산의 통화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 피투자 집합기구의 기준통화가 외국통화인 경우 환헤지를 할 예정이지만, 현실적으로 완전 헤징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설정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 환헤지거래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환차손익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유동성위험	✓ 채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신탁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 종목의 유동성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투자신탁 규모 변동에 따른 위험	✓ 당 투자신탁의 규모가 환매 등에 의해 일정 규모 이하로 작아지는 경우, 원활한 분산 투자가 불가능해 질 수도 있습니다.
순자산가치 변동위험	✓ 환매청구일과 환매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일까지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해지 위험	✓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 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이거나, 설정하고 1 년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투자자의 동의 없이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상세 투자위험은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유형



이 투자신탁은 당사가 정의한 5가지 투자 위험등급들 중에서 **2등급**에 해당하는, 당사의 투자위험등급상 **두번째로 높은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으므로, 당사의 투자신탁에 투자하려는 고객들중에서 **비교적 높은 투자위험 성향**을 보이는 고객들에게 적합하며,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의 변동성을 이해하고 그 변동성의 대가로 주어지는 상대적으로 높은 기대수익과 채권투자로부터의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을 함께 추

구함으로써, 주식형펀드 대비 절반정도의 투자위험을 지니고자 하는 고객에게 적합합니다. 이 투자신탁에 대한 권장투자기간은 3년 이상입니다.

이 위험등급분류는 프랭클린템플턴투신운용의 내부 기준에 따른 위험등급입니다. 판매회사는 판매회사별 특성을 반영하여 위험등급을 재분류할 수 있습니다.

5. 운용전문인력

가. 운용전문인력(2013.12.31.현재)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비고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 수	운용자산 규모(원)		
백상훈	1972	책임운용 전문인력	47개	10,663억	당사 컴플라이언스팀(1999-2000) 당사 채권운용팀(2000-2008) 당사 FTMIS 팀(2008-2009.4) 당사 채권운용팀(2009.5-현재)	-
김동일	1962	부책임운 용전문인 력	55개	13,499억	삼성생명(1987-1996) 삼성투신운용(1996-1999) KTB자산운용(1999-2000) 리젠트자산운용(2000-2001) 당사 채권운용CIO(2001-현재)	-

주 1) 운용전문인력이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투자실적 추이 (연도별 수익률, 세전기준)

(단위:%)						
집합투자기구	기간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 5년차

		(13.01.01~ 13.12.31)	(12.01.01~ 12.12.31)	(11.01.01~ 11.12.31)	(10.01.01~ 10.12.31)	(09.01.01~ 09.12.31)
프랭클린템플턴 글로벌 증권 투 자신탁(주식혼합 -재간접형)	집합투자기구	14.49	13.29	-8.98	8.58	30.32
	비교지수	13.15	11.88	-1.83	10.16	23.78

주1) 비교지수 : MSCI All Country Index(60%) + Barclays Capital Total Return Bond Index(30%) + KBP_Call(10%)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데이터 산출에 대해서는 변경 전 기존펀드명을 사용하였습니다.

II. 매입·환매관련 정보

1. 보수 및 수수료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구 분	지급비율 (또는 지급금액)	지급시기
선취판매수수료	-	-
환매수수료	90일 미만시, 이익금의 70%	환매시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 분	지급비율 (또는 지급금액)
집합투자업자 보수	순자산총액의 연 0.3000%
판매회사 보수	순자산총액의 연 1.1000%
신탁업자 보수	순자산총액의 연 0.0500%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순자산총액의 연 0.0300%
기타비용(사유발생시) ¹⁾	순자산총액의 연 0.0065%
총 보수·비용 비율	순자산총액의 연 1.4865%
증권거래비용 ²⁾	순자산총액의 연 0.0244%

주1) 기타비용은 증권에 대한 예약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

용비용 제외)으로써 201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최근 1년 동안의 자료를 기초로 한 비용으로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으며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2) 증권거래비용은 201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3)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금융비용 및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른 발행분담금(발행분담금 총액 중 회계기간 초일부터 2013.8.28. 까지의 부분은 펀드가 부담하고, 2013.8.29. 이후 분은 자산운용사가 부담)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4) 총 보수·비용 비율은 집합투자기구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비용

(단위: 원)

투자기간	1년차	3년차	5년차	10년차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56,085	492,058	862,469	1,963,221

주1)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선취판매수수료 또는 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선취판매수수료를 및 총 보수·비용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과세

가. 투자자는 투자대상으로부터 발생한 이자, 배당 및 양도차익(해외주식 매매차익 포함)에 대하여 소득세 등(개인 15.4%, 법인 14.0%)을 부담합니다.

나. 2007년 6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거주자에 한하여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외국상장주식의 매매·평가 손익도 수익자의 과세대상 이익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Mutual Fund, Reits, ETF등의 지분증권 및 이와 유사한 Paper Company(해당 국가 법인세 부담이 없는 회사)의 주식등은 과세 대상입니다.

국내외상장주식 등에 대한 손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수익자 입장에서는 투자손실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국내외상장주식 등의 매매 및 평가 손실이 채권이자, 주식배당, 비상장주식 평가, 환차익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보다 큰 경우

(나) 2007년 6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외국상장주식의 평가이익보다 2007년 6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외국상장주식의 평가손실이 더 큰 경우(∵ 2007년 6월 1일 이전 가입한 수익자에 한하여 2007년 6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외국상장주식 평가 이익부분은 수익자의 과세대상 이익에 포함)

다. 비과세대상 및 과세대상 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은 일반기준가에 반영되며, 전체 소득 중 비과세대상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만 과표기준가에 반영되어 과세의 기준이 됩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 매일 가격이 변동되는 자산 중 국내외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차익은 비과세대상으로 분류되나, 외화자산의 환차손익, 채권의 매매·평가차익, 주식의 배당에 대한 배당소득 등은 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과표기준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는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기준가격과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기준가격 산정 및 매입·환매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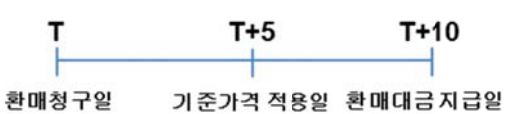
가. 기준가격 산정 및 공시

구분	내용
기준가격 산정방법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직전일의 집합투자증권 총수로 나누어 산출
기준가격 공시방법 및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하여 공시. 다만, 최초설정일[신규 수익증권의 종류를 발행하는 날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하는 날]의 기준가격은 1좌를 1원으로 하여 1,000원으로 공고. - 판매회사 영업점 및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주1)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펀드재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매입 및 환매 절차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영업시간 중에 매입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판매회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매입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납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구분	오후 5시 이전	오후 5시 경과 후
매입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T)로부터 제3영업일(T+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T)로부터 제4영업일(T+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환매	환매청구일(T)로부터 제5영업일(T+4)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제10영업일(T+9)에 환매대금을 지급 	환매청구일(T)로부터 제6영업일(T+5)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제11영업일(T+10)에 환매대금을 지급 

III. 요약 재무정보

(단위: 원)

대차대조표	제8기	제7기	제6기
	2013-12-04	2012-12-04	2011-12-04
운용자산	1,348,501,840	2,737,407,960	3,899,808,565
증권	1,168,912,287	2,568,672,469	3,101,152,858
파생상품	2,121,722	8,419,456	97,270,363
부동산/실물자산			

현금 및 예치금	177,467,831	160,316,035	501,385,344
기타 운용자산			200,000,000
기타자산	56,703,738	-77,819,176	-16,182,217
자산총계	1,405,205,578	2,659,588,784	3,883,626,348
운용부채			
기타부채	115,748,933	18,085,449	207,656,674
부채총계	115,748,933	18,085,449	207,656,674
원본	1,289,456,645	2,934,276,507	4,511,402,956
수익조정금			
이익잉여금		-292,773,172	-835,433,282
자본총계	1,289,456,645	2,641,503,335	3,675,969,674
손익계산서	제8기	제7기	제6기
	2012-12-05~ 2013-12-04	2011-12-05~ 2012-12-04	2010-12-05~ 2011-12-04
운용수익	326,015,379	374,618,707	2,658,241
이자수익	2,704,961	6,329,577	11,559,738
배당수익			
매매/평가차익(손)	323,240,334	368,280,378	-8,905,260
기타 수익	70,084	8,752	3,763
운용비용	29,797,095	46,897,177	82,609,650
관련회사 보수	29,188,525	45,949,323	81,002,679
매매수수료	598,030	929,774	1,579,110
기타 비용	10,540	18,080	27,861
당기순이익	296,218,284	327,721,530	-79,951,409
매매회전율(%)			

